

구어에 나타난 주격조사 연구* **

유 혜 원
(단국대학교)

<Abstract>

Yoo Hye won. 2009. **A study of the nominative case marker in Korean spoken language.** *Korean Semantics*, 28. This paper concerns the properties of the Korean nominative case marker 'i/ka' in Korean spoken language. Spoken language is different from the written language in various aspects. So in this paper, I extracted the sentences with the Korean nominative case marker in the spoken language corpus and examined the various aspects of the nominative case markers.

To analyze the various aspects of the spoken language, we divided the grammar into three levels; phonological level, syntactic level and discourse level. The linguistic information in each level can affect other level and change its function. In this model, I can explain the properties of the Korean nominative case marker more efficiently. This study will help the further study on spoken language.

핵심어 : 구어(spoken language), 문어(written language), 주격조사(nominative case maker), 주어(subject), 주제(theme), 초점(focus), 통사 층위(syntactic level), 담화 층위(discourse level), 음운 층위(phonological level), 정보 구조(information structure)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21-A00107).

** 본 논문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시고 수정 방향 등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1. 서론

본고는 구어 텍스트에 나타난 주격조사의 출현 양상의 특징을 토대로 이를 해석할 수 있는 문법 모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들어 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존의 문법 연구로는 설명되지 않는 구어의 복잡성과 다면성에 주목해 왔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가 문어 중심의 연구였기 때문에, 구어의 복잡성을 모두 다 설명할 수 없었다는 판단 아래, 구어에 나타나는 문법 현상들이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구어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텍스트를 대상으로 주격조사의 실현 양상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고에서는 구어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성인 자유 발화 텍스트를 자료로 삼았다. 이 자료는 20대 이상의 성인 자유 발화를 전사한 자료로 친분이 있는 3인의 발화자를 모집한 후, 녹음실에서 마이크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녹음하고 동시에 캡처기로 자료를 녹화하였다.¹⁾ 이렇게 녹화된 자료는 한글로 전사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특성상 철자 전사된 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²⁾ 이러한 자유 발화 자료 중에서 성비를 고려하여 남학생으로만 구성된 발화와 여학생으로만 구성된 발화, 남녀가 섞여있는 발화 2개를 주로 살펴보았다.³⁾

- 1) 본 자료는 고려대학교 음성정보 연구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한국어 구어 분석을 위한 문법 모형의 개발과 활용' 연구의 일환으로 수집된 자료임을 밝힌다.
- 2)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는 성인 자유 발화 전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어 말소리의 빈도 관련 정보와 구어체 발화의 운율, 음운, 형태, 통사, 의미, 화용적 특징을 두루 살펴 언어학적 분석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철자 전사와 발음 전사 두 종류로 전사가 이루어졌다. 이 전사 자료에서는 가능한 많은 구어적 정보를 포함하기 위하여 언어적 정보뿐만 아니라 발화 상황이나 기침, 웃음 등의 준언어적 정보까지 포함하였다. 특히 철자 전사는 맞춤법에 맞게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어 정보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 3) 대상 자료의 분량과 구성원 정보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분량은 한글 파일에서 글자 크기 10, 문단 160으로 설정된 것으로 산출한 것이다.

	시간	분량	구성원성별(나이)
1	66분 57초	69쪽	남(24), 남(25), 남(25)
2	69분 35초	44쪽	여(23) *3
3	74분 53초	62쪽	남(21), 여(20), 여(21)
4	83분	50쪽	남(34), 여(28), 여(28)

주격조사가 통사적으로 주어를 만드는 문법 표지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주격조사의 또 다른 기능에 주목한 연구가 많이 있었다. 이들 연구에서 논란이 되어 왔던 많은 부분들이 구어적 속성과 관련 있으리라는 가정 하에 이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기존 문어 중심의 문법에서 설명하기 힘들었던 예문이나 논란이 되었던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 보면서 구어적 환경에서 이들이 생성되는 규칙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구어를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법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구어에서 주격조사가 붙어서 나타나는 언어 현상이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구어적 속성과 관련하여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구어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존의 문법 모형을 검토하여 구어를 가장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법 모형을 제시하고 그 속에서 주격조사가 어떤 기능을 갖는지 논의하기로 한다. 4장에서는 2장에서 검토했던 예문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이들이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 구어에서의 주격조사 출현의 특성

최근 들어 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구어의 복잡한 양상을 설명하려는 연구가 많이 있었고, 이와 더불어 문어와 구어의 관련성과 차별성에 대한 연구가 있어 왔다. 최근 구어에 대한 이러한 관심을 토대로 구어와 문어의 문법 체계가 다르다는 다소 조심스러운 가정도 나오고 있다.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어의 영역에서 구어와 문어가 별개의 언어로 분리될 수 있을 만큼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 입장은 아니지만, 구어가 문어와 언어 표현이 생성되는 도구로서의 기제와 언어 장면이 다르기 때문에, 언어 실현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구어와 문어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구어가 음성 언어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문어와 언어 표현이 생성되는 장면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문어와 구어는 특징적인 현상들이 나타난다. 우선 음성 언어로 실현된다는 특성은 발화가 용이한 표현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특정 서술어가 나타나는 주어 표현에 주격조사가 공기하는 빈도

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자유 발화의 구어 텍스트 중에서 네 개의 자료를 대상으로 주격조사인 ‘이/가’가 나타나는 경우를 추출하여 그 비율을 살펴보았다.⁴⁾ 네 개의 파일을 대상으로 전체 발화수와 주격조사가 나타나는 발화수를⁵⁾ 각각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전체 발화수	주격조사 출현 발화수	주격조사 출현 비율 ⁶⁾
1	2727	434	16%
2	1512	405	27%
3	2412	250	10%
4	1886	404	21%
합계	8537	1493	17%

7)

위의 자료를 살펴보면 2번 자료와 3번 자료 사이에 주격조사 출현 비율이 다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2번 자료 같은 경우 말차례 바꾸기가 자주 일어나고 있고, 대화의 대부분이 단답식의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비교적 발화 문장이 짧은 반면에, 3번 발화는 각 대화 참가자들이 어떤 사실을 기술하거나 하는 등의 내용이 많아서 한 사람이 발화를 구성하는 단위가 대체로 길었

4) 주격조사가 출현한 문장을 추출할 때, 학교 문법에서 보격조사로 인식되는 ‘-이다, 되다, 아니다’에 선행하는 보어에 나타나는 것도 함께 추출하였다. 이는 본고가 궁극적으로 문어 문법과 구어 문법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규명하고, 구어에 나타난 ‘주격조사’의 본질적 기능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법적 보어 기능을 하더라도 형태적 동일성에 중점을 두어 함께 다루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처럼 ‘이’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 역시 ‘이’의 변이형으로 보고 함께 추출하였다.

5) 여기에서 문장이라는 표현 대신 발화수라고 한 것은 구어는 문어와 달라서 기존 문법에서 문장이라고 생각되는 단위와는 다른 문법 단위를 보이는 것들이 있다. 이는 기존 구어 연구에서 발화 단위라는 명칭으로 명명되고 있어서 여기서는 발화수라는 명칭을 썼다. 발화 단위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6) 여기서 비율은 (주격조사 출현 빈도/총 발화수)*100으로 계산하여 반올림한 수치를 나타낸 것이다.

7) 이전 논문에서는 수치가 어렵수로 정확하지 않아서 심사위원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 파일의 발화수를 수작업으로 직접 산출하여서 정확도를 높였다.

다. 따라서 문장을 길게 구성할 경우 주격조사의 출현이 빈번함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간의 출현 비율이 차이가 있지만, 전체 평균을 내 보면 주격조사 출현 비율이 17%이다.⁸⁾

그런데 네 개의 텍스트에서 ‘있다, 없다’가 서술어로 쓰인 문장의 주어 형태가 주격조사와 함께 나타나는 비율은 이보다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2)

		[1]	[2]	[3]	[4]	총합
있	원자료	185	154	109	148	596
	주격조사	64	83	32	59	237
	비율(%)	35%	53%	29%	39%	39%
없	원자료	113	42	59	74	288
	주격조사	36	17	16	40	109
	비율(%)	31%	16%	27%	54%	38%

구어 텍스트가 개인적 언어 습관이 반영되기 때문에 각 텍스트별로 편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평균 38% 이상의 문장에서 주격조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동일한 텍스트에서 ‘생각하다’가 서술어로 나타나는 경우를 조사해 보았더니, 네 개의 텍스트에서 총 26회가 나타났고, 그 중 ‘생각하다’의 주어인 성분이 주격조사와 공기하는 경우는 4회에 그쳤다. 이는 주격조사가 나

8) 익명의 심사위원께서 이 통계치가 국어학적 의미를 가지려면 글말 등과의 비교를 통하여 국어학적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해 주셨다. 글말과의 비교를 위해서 코퍼스를 문장 단위로 가공하고 각 문장에서 출현하는 주격조사를 다시 문장별로 카운트해야 한다. 한 문장에 주격조사가 둘 이상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 작업은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기존 자료를 토대로 비율로 계산을 해 보는 것으로 짐작을 해 보기로 한다. 김흥규 외(1997)에서는 150만 어절 규모로 형태소 말뭉치를 구축하고 여기에서 형태소 단위별 통계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주격조사의 토큰수는 79868개였으며, 전체 어절수 대비 출현 비율은 대체로 5%정도였다. 하나의 문장에 나타나는 평균 어절수를 4로 잡으면 주격조사가 출현하는 비율을 대략 20%가 되는데, 이는 구어에서 나타나는 빈도가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으로 짐작할 수 있다. 비교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필자가 위에서 통계 수치를 제시한 것은 주격조사가 얼마나 자주 쓰이는지에 대한 필자의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고, 자료 간 정밀한 비교와 분석은 문장 단위별 구문분석 말뭉치가 구축되고 이를 통한 연구가 기반이 되면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타나는 비율이 15%가 되어 ‘이/가’가 출현하는 문장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구어는 발화자의 언어 습관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고, ‘있다, 없다’의 경우 주격조사가 나타나는 주어와 언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표현들이 많다는 점에서 구어에서 관습적 표현이 생산적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⁹⁾ 구어의 이러한 현상은 구어가 음성 언어로 실현되기 때문에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음성 언어로 실현되는 대부분의 구어는 즉흥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수정을 반복하여 표현을 정제할 수 있는 문어에 비하여 덜 규범적 표현들이 많이 나타난다.¹⁰⁾ 이러한 구어적 특성으로 구어는 문법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것으로 생각하거나, 구어에 나타나는 많은 표현들이 말할수 정도로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3) 가. 사과가 먹었는데 맛이 있었어.

나. 근데 공부가 화공이 워낙 어려워.

다. 진짜 예술이야 얼굴이 - 피부가 -가!

르. 야 둘이 싸움 붙이니까 막 엄청 많이 나오잖아 얘기가 막 얘기가 이십년 전 얘기가 막 캐내고 그러잖아 지금-.¹¹⁾

9) 실제 구어 텍스트에서 ‘있다, 없다’외에도 형용사를 비롯한 자동사류에서 주격조사가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구어 자료를 토대로 동사의 종류별 조사 실현 빈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더 많은 구어 자료들을 구축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음의 과제로 남겨둔다.

10) 구어에서 덜 규범적인 문장 표현이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기존의 문어 중심의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규범적 문장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물론 기존의 문법들로 설명될 수 있는 규범적 문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주격조사가 구어나 문어에서 그 속성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히 기존 문어적 관점의 문법관으로 설명하기 힘들거나 논란이 많은 현상이 구어에서 두드러진다는 것은 문법 기술시 구어 특징적인 특성들이 고려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논란이 많았던 현상이나 문어 문법에서 다루지 않았던 구어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이는 구어와 문어의 문법이 전혀 다른 틀에서 설명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은 아니지만, 구어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각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피력하는 것이다.

11) 익명의 심사위원께서 위의 예문들이 구어에서의 주격조사 출현의 전형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본고에서는 구어의

(3)의 문장은 아무런 음성적 고려 없이 읽었을 때 어색한 문장이라고 하거나 비문법적인 문장으로 생각하기 쉽고, 이들이 용인된다고 인정하더라도 기존의 문법으로 설명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3ㄱ)의 문장은 조사 선택이 잘못되었거나 어색한 문장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사과가’와 ‘먹었는데’ 사이에 휴지를 두어 읽어 보면, 구어적 상황에서 충분히 발화 가능한 문장이다. 이는 음성적 지표가 절의 경계표지가 되는 경우로 이처럼 구어에는 음성적 표지가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3ㄴ)은 기존 문법 연구에서 주격 중출 현상으로¹²⁾ 다루어 오던 예문이다. 이러한 주격 중출 현상에 대해 많은 한국어 화자들이 어색한 문장으로 인식하는데 구어성이 가장 두드러진다고 생각되는 성인 자유 발화 텍스트에서 주격 중출 현상은 매우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음성적 정보가 추가되는 구어적 환경에서 이러한 문장이 자연스럽게 통용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효율적으로 분석해 내기 위해서 구어의 특성이 전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3ㄷ)은 문어 중심의 연구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던 예문으로 주격조사가 붙은 형태 즉 문법적으로 주어의 기능을 수행하는 성분이 두 개가 나타난 문장이다. 이들은 기존 문법 연구에서 다루는 주격 중출과도 그 성격이 달라서 이들을 설명해 낼 수 있는 기제를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들도 구어의 특성을 기반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

(3ㄹ)은 동일한 주어가 반복되고 있고, 관점에 따라서는 단순한 말실수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예문은 구어의 또 다른 특성을 보여주는 문장이다. 문어 중심의 문법 연구에서는 문장이 문법 기술의 기본 단위이다. 문장은 비교적 명쾌한 범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음성으로 발화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구어에서는 문장이라는 개념을 쓰기에 부적절한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따

좀 더 특징적인 현상 즉, 문어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구어적 현상에 좀 더 집중하고자 위의 예문을 제시하였고, 여기서의 예문은 4장의 예문 (8)로 유형화하여 보여주었다. 따라서 위의 현상들은 문어와 차별되는 구어의 특징적 현상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2) 주격 중출 현상은 문법 연구에서 이중 주어문, 중주어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고 있는데 본고에서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주격 중출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라서 구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문장이라는 용어 대신 발화 단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¹³⁾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코퍼스의 발화단위 구분 기준에 근거해 볼 때 위의 예는 하나의 발화 단위가 된다.¹⁴⁾ 기존의 문장 단위와는 다른 발화 단위의 출현은 구어의 대표적인 특성의 하나로 파악해 볼 수 있다.

구어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문장들은 기존의 문법으로 설명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구어를 설명해 내기 위해서는 구어가 생성되는 상황들이 고려되어야 하며, 그러한 상황을 반영한 틀 안에서 이들 현상을 설명해 내야 한다. 구어성이 두드러지는 성인 자유 발화는 대화 참가자들이 있고, 대화 참가자들이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의 언어 행위이기 때문에, 다양한 대화 전략 즉 담화 전략이 있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담화 전략의 전제 없이는 구어의 복잡한 현상들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이들 구어를 설명할 수 있는 문법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들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문법 모형을 제시한다고 해서 기존의 연구와는 획기적으로 다른 모형을 제시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구어에서도 기존의 규범적 예문을 다루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 성과는 본 연구의 토대가 된다. 그러나 구어의 이러한 다양한 현상까지를 문법 기술에서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문법 기술의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13) 구어의 발화 단위에 대한 연구는 신지영(2001), 이희자(2002), 전영옥(2003), 김태경 외(2005)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연구에서 발화 단위는 대체로 억양 단위라고 하는 운율상의 특성과 의미적 완결성 등을 발화 단위를 나누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화 단위의 구획의 양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14) 본고에서 활용한 전사 자료에서 발화단위를 구분하는 기준은 크게 네 가지로 제시되었다. 첫 번째는 발화가 중단된 대화 차례의 이동의 경우이다. 발화가 중단되는 경우는 질문이나 발화의 종류처럼 자발적 중단이 있고, 청자의 적극적인 호응, 끼어들기 등에 의한 강제적 중단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종결 어미가 사용되면 발화를 구분하였고, 세 번째는 1초 이상 휴지가 지속되는 경우 발화를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후행 발화의 내용이 변화한 경우 발화를 구분하였다. 이 발화의 경우 종결어미가 쓰이고는 있으나 발화가 중단됨이 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내용 또한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 하나의 발화로 분류하였다.

3. 구어의 문법 모형과 주격조사의 해석

구어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어의 특성을 반영한 문법 모형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 구어 문법과 문어 문법의 관련성과 차별성에 대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한국어라는 큰 틀에 생성 기제가 다른 문어와 구어가 나타나는데 이들의 차별성에 주목하게 되면 구어 문법과 문어 문법이 다르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문어와 구어의 차이가 문장을 형성하는 기본틀이 다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가정은 문법 기술에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구어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이/가’는 기존 문법 연구에서 다른 것처럼 주격조사로 기능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통사 구조를 따라 문장이 생성된다는 통사론 기본 전제를 구어 문법에서도 유지하는 것이 여러모로 합리적이다.

구어의 복잡한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음성적 실현 부분과 대화 상대자를 상정하는 담화 부분이다. 구어는 문어에 비해 이러한 부분이 강조되기 때문에 담화 전략에 따라 표면형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결국 문법을 이루는 하위 층위 간의 정보가 자유롭게 교환될 수 있는 모형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층위 간의 교류 가능성을 제시한 문법 모형으로는 Jackendoff(2005), Halliday(2004)¹⁵⁾ 등을 들 수 있다. Jackendoff(2005)에서는 삼분지 평행 구조를 제시하면서 음운부 형성 규칙에 의해 제시된 음운구조와 통사부 형성 규칙에 의해 제시된 통사구조, 인지부형성규칙에 의한 인지구조가¹⁶⁾ 각각 평행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보고, 또한 이들은 서

15) 언어의 다면적 성격을 설명해 내기 위해 제안된 문법 모형 중의 하나가 Halliday(2004)에서 제시된 기능문법이다. 이 문법 모형에서는 문법과 관련된 언어의 기능을 experiential function, interpersonal function, textual function의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들은 이론적으로는 분리되어야 하고, 때로는 문장 구조에서 분리되어 실현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서로 복합되어 나타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Halliday(2004)의 모형은 기존의 문법을 어디에 위치하여 대응하는지 등이 모호하기 때문에 실제로 문법적으로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이는 필자가 갖고 있는 문법관과 근본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서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에는 동의하는 바가 많지만 실제 언어 해석을 위해 채택하기 어려운 면이 많다.

로 간의 정보 교환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¹⁷⁾ 결국 이러한 문법 모형에서는 음성 표지가 문법적 표지로 실현되는 경우와 담화 전략이 문법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설명하는데 부담이 없다. 따라서 음운 층위와 문법 층위, 담화 층위가 평행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Jackendoff(2005)의 기본적인 가정을 받아들이기로 한다.¹⁸⁾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다양한 담화 전략이 통사 구조에 반영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문법 층위 간의 상호 적용 규칙을 상정할 경우 주격조사와 관련하여 논의된 기존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주격조사에 대한 연구는 크게 문법적 연구와 담화 관련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문법적 연구에서 주격조사가 주격 표지로 기능한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한 축이라면 주격조사가 주격 표지 기능 이외에 다양한 의미 기능을 갖고 있다는 측면의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최호철(1999)에서는 ‘이/가’의 의미 분석을 통하여 문장 안에서 주어로 기능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가’가 가지는 의미로써 ‘주체화’와 ‘강조화’를 들고 있다.¹⁹⁾ 이는 주격조사가 주격 표지의 기능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특정

16) 여기서의 인지구조는 의미구조뿐만 아니라 담화 층위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17) Jackendoff(2005)에서는 문법 모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우선 촘스키의 생성문법으로 대표되는 통사 중심주의가 그 하나인데, 여기서는 통사부가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구조이며, 언어의 모든 합성 결과는 이러한 통사 구조를 토대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입장이다. 두 번째 입장은 기본적으로 통사 중심 모형을 비판하면서 제시된 것으로 수평적 문법 계층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형에서는 통사부는 문법에 있는 세 가지 중요한 구성소 즉, 음운구조, 통사구조, 인지구조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이는 각 영역이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상호 작용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기능적 관점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18) Jackendoff(2005)에서는 기본적으로 평행적인 문법 모형을 제시하면서 통사부를 구통사부와 형태통사부로 나누고 이들이 인지 구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문법 기능 층위를 두어 이들이 통사부와 인지구조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문법 기능 층위는 논항구조의 표현들이 보다 정확하게 구현되도록 하기 위해 의미적 관계의 통사적 표현들에 힘을 부여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문법 기능 층위에 대한 정확한 지위나 관계들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Jackendoff(2005)의 기본적인 가정은 받아들여지고, 문법 기능 층위는 상정하지 않기로 한다.

19) 주격조사의 이러한 의미적 기능에 대한 연구는 신창순(1975), 이기동(1981), 성기철(2006)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성기철(2006)에서는 주격조사 ‘이/가’의 의미 기능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를 통하여 ‘이/가’가 폭넓게 분포하는 환경에서 동일하게 ‘강조’

한 경우에 의미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주격조사에 대한 문법적 논의에서 중요한 것이 주격 중출과 관련된 논의이다. 주격 중출 구문은 두 개의 주격조사가 나타날 경우, 이들이 붙은 형태를 모두 주어로 인정하는 견해와 하나만을 인정하고 다른 하나를 주격나 초점 등의 다른 문법 기제로 설명하려는 견해가 그 하나이다.²⁰⁾

주격조사의 이러한 양상들을 설명하려는 또 다른 관점은 담화적 상황에서 주격조사가 초점 표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논의이다. 이러한 담화적 상황에서의 조사 기능의 연구는 화제와 초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루어졌다. 여기에서는 주격조사 ‘이/가’가 신정보를 표시하는 담화적 기능이 있음을 제시하였고, 신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초점 기제의 하나로 주격조사가 실현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²¹⁾ 주격조사를 초점 기제로 보는 견해는 담화적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어를 설명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²²⁾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과연 주격조사 자체가 초점의 역할을 한다고 정의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이다. 실제로 박철우(1998)에서는 주격조사 ‘가’는 일반적으로 주격이라는 문법적 기능을

의 의미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논의에서는 ‘이/가’가 가지는 기본적인 기능은 주격 표지라고 하고 있으며, 이차적으로 강조의 준어휘적 의미를 가진 조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20) 주격 중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존 문법 연구에서 많은 이론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주격 중출문을 복문 구조인 서술절로 분석하는 논의와 주격 중출을 단문으로 보고, 두 개의 문법적 지위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논의가 대표적이다. 주격 중출을 단문으로 보는 입장은 다시 둘을 모두 주어로 인정하는 경우와 하나만을 진주어로 인정하고 또 다른 것은 다른 문법적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 그 하나이다.

21) 정희원(2001)에서 초점은 이미 전제된 바탕과 상보적인 요소로 논의 중인 화제에 대해 전달되는 새로운 정보 요소로 정의되어 왔다고 하면서 초점이 강조의 일종으로, Halliday(1967)을 인용하여 ‘어디에 메시지의 주된 요점이 놓이는가에 대한 화자의 결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22) 임홍빈(2007)에서는 주격조사를 초점 기제로 볼 경우 전체적인 문법기술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고 있다. 이 논의에서는 주격 중출문에서 제1성분에 대해서 이것이 초점을 표시한다는 견해가 일반화되어 있으나 그것이 왜 초점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없음을 비판하면서, 오히려 이러한 초점 기제를 문법에 반영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다각적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임홍빈(2007:466~477)를 참조하기 바란다.

표시하거나 일부 대격 보어를 취할 수 없는 타동사의 보어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지만 조사 ‘가’ 자체가 초점을 나타낸다는 의견에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주격조사가 붙은 형태가 초점이 되는 경우는 주격조사가 붙은 성분이 운율적으로 돌돌림되는 경우라고 하면서 주격조사가 초점 표지가 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²³⁾ 본고에서는 박철우(1998)에서처럼 주격조사는 문법적 주격 표시 기능소임을 전제하고, 담화적 차원에서 초점 표지라고 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초점 논의에서 종종 거론되는 주격 중출 문장들의 사례를 통해 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 (4) 성진: 자기 팀플 못 하는 거 [2인정 안 해]2
 지현: [2(웃음) 야]2 잘 했는데 우리가 **위치가** 안 좋았어
 현진: 위치?
 현진: 뭐가 안 좋아 니-?
 현진: 마지막 판도 둘이 붙어 있었는데

위의 예문에서 두 번째 발화는 중격 중출 구성 중의 하나이다. 여기에서 두 번째 나타나는 주격조사가 붙은 성분이 초점 성분임을 이후의 발화를 통해 알 수 있다. 실제로 자연스럽게 위의 발화를 읽어 보면 ‘위치가’가 운율적으로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누군가 두 번째 발화를 듣고 ‘누가 위치가 안 좋았다?’하고 되물어서 답변을 하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대화를 상상할 수 있다.

- (5) A : 누가 위치가 안 좋았다고?
 B : **우리 팀이** 위치가 안 좋았다고.

화자와 청자의 대화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 (5)의 주격 중출문에서는 ‘우리 팀이’가 초점을 받는 기제가 된다. 따라서 초점이라는 기제는 담화 상황에서

23) 정희원(2001)에서는 한국어의 초점 표시 장치로 통사적 구성에 의한 초점 표시인 분열문 구조, 운율적 돌돌림, 어순에 의한 초점 표시 등을 들고 있다. 많은 초점 관련 연구에서 운율적인 특성이 초점 구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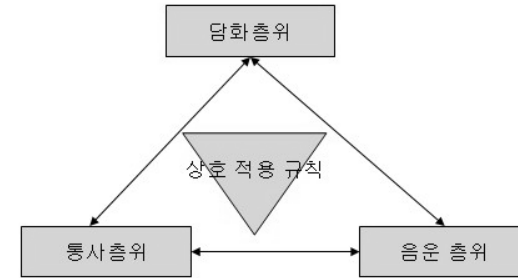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 할당되는 것이지 주격조사 자체가 초점 기제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주격조사가 초점 기제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주격조사의 어떤 특성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주격조사가 붙은 성분은 문장에서 주어로 기능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어 가 통사 층위의 성분으로 다루어지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다분히 의미적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주어’의 개념을 설명하는 많은 문법 책에서 주어를 ‘서술의 주체가 되는 성분으로, 동작이나 성질, 상태의 주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 어떤 것에 대한 주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의미적 개념이며, 개념의 특성상 문장에서 중요한 성분을 표현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격조사가 붙은 주어가 문장에서 중요한 정보를 표현하는 경우가 빈번하리라 예상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운율적 고려 없이 주격조사를 초점 기제로 설명해 왔던 것으로 생각된다.²⁴⁾

주격조사의 이러한 특성은 문법의 층위를 세 부분으로 나누고 세 부분의 상호 적용 규칙을 적용하여 구어의 다양한 속성을 설명하려는 문법 모형에서도 잘 설명이 된다. 우선 주격조사는 통사적으로 주격표지의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상정할 수 있으며, 실제로 주격조사가 붙은 다양한 실현형은 다른 층위와의 상호 적용 규칙에 의해 설명할 수 있게 된다. 구어를 설명하기 위한 문법 모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6) 구어 설명을 위한 문법 모형

24) 박철우(1998:73~74)에서는 ‘가’는 ‘가’가 붙은 항목에 ‘총망라성’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가’가 붙은 항목이 초점으로 해석되어 왔다고 하면서, ‘가’가 붙은 요소가 초점이 되는 경우는 운율적으로 돌돌림이 있는 경우이고, ‘가’가 붙지 않은 요소도 운율적 돌돌림이 주어지면 총망라성 의미를 드러내면서 초점이 된다고 하고 있다.



문법을 이루는 세 층위는 서로 교류가 가능하며, 따라서 어떤 층위의 필요가 다른 층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상호 적용 규칙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위의 문법 모형은 문법 층위들이 기본적으로 평행적(parallel)이며 이들 층위가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서로 교류가 가능하다는 기본적인 가정에 동의하고 있다. 문법 층위 간 교류는 상호 적용 규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통사 층위에서 주격 표지로 기능하는 주격조사가 붙은 주어는 담화 층위와 음운 층위와의 교류를 통해 실현형을 달리 할 수 있게 된다. 층위 간 상호 적용 규칙은 특정 층위의 요구가 동인이 되어 다른 층위에서의 기능 변화를 이끄는 것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담화 층위의 특정 요구가 동인이 되어, 통사적 구조가 변하거나, 음성적 기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되거나 하는 등의 변화를 겪게 된다. 따라서 층위 간 상호 적용 규칙은 다음과 같이 구조화 할 수 있다.

(7) 층위 간 상호 적용 규칙의 구성

- ㄱ. 동인 : 특정 층위의 요구
- ㄴ. 변화 : 다른 층위에서의 기능 변화²⁵⁾

25) 익명의 심사자께서 본고에서 제시된 규칙이 원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규칙보다는 원리에 가깝다고 지적해 주셨다. 본고에서 제시한 규칙의 형태가 동인과 그로 인한 특정 층위의 변화만을 기술하고 있어서 이러한 면이 두드러진다고 생각한다. 규칙의 완성을 위해서는 담화적 동인이 통사 층위의 변화에 간여하게 될 때 통사 내부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더 구체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이 주제는 통사적으로 매우 자세하게 검토되고 분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후의 연구를 기약하기로 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층위 간 상호 적용 규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정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구어의 문장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4. 구어 분석의 실제

2장에서 구어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예문 유형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8) ㄱ. 격 실현의 오류
- ㄴ. 주격 중출 현상
- ㄷ. 어순의 도치
- ㄹ. 동일한 요소의 반복
- ㅁ. 발화 단위의 재구성

위의 현상들은 통사 층위에서 설명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현상이다. 따라서 3장에서 제시한 것처럼 문법 층위 간 상호 적용 규칙을 상정하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문법 층위 간 상호 적용 규칙을 상정하기 위해서 2장에서 구어의 특징적인 현상으로 제시했던 예문들을 하나씩 분석하기로 한다.

- (9) 사과가 먹었는데 맛이 있었어.

(9)는 표면적으로 격 실현이 잘못되었거나 격고체 구문 등으로 분석해야 할 것 같은 문장이다. 이러한 문법적 오류를 피하는 기제로 음성적 기제가 활용되고 있다. 이는 음성적 표지가 절 경계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음운 구조와 통사 구조의 상호적용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예이다. 위의 예문에서 음성적 표지가 통사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 데에는 (9)의 문장을 발화하는 담화 전략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데, 이는 문장에서 ‘사과’를 가장 중요한 정보로 강조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담화 전략에 의해 ‘사과’가 문장의 주체로 실현되었다. 이에 ‘사과’가 ‘먹었는데’에 대한 목적어로 실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화의 경제성을 위해 똑같은 대상을 반복하는 대신 음성적 표지로

절 경계를 만들어 줌으로써 자연스러운 발화를 생성하게 된 것이다.²⁶⁾

여기에서 우리는 구어에서 두드러지는 담화 전략을 산정할 수 있다. 구어가 즉흥적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발화자가 문장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정보를 메우려는 의도로 여러 가지 기제를 활용하리라고 예측할 수 있다. 여기서는 ‘사과가 맛이 있었어.’라는 내용을 발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먹었는데’라고 하는 ‘절’을 삽입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성광수 외(2005:228)에서는 주어나 목적어 등의 중출 원인을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재구조화와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보완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²⁷⁾ 이 중 보완성이란 문장 또는 서술부의 의미상 불완전성에 대한 보충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주로 관용적이거나 화자의 판단에 의한 의미상의 보완적인 설명법이라고 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절의 삽입과 절 경계의 음성 표지의 도입은 ‘의미상 보완성’라는 담화 전략에 의해 음성적 표지가 통사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10) 담화 층위, 음운 층위, 통사 층위의 상호 적용 규칙
- ㄱ. 동인 : 담화 층위 <의미상 보완성>
- ㄴ. 변화 : 음운 층위 <음성 지표의 기능화>
- 통사 층위 <절 경계 표지 : 음성 지표 도입>

여기에서 ‘의미상 보완성’이라는 담화 전략은 통사적 구조를 변화시키는 동인이 되기도 한다. 주격 중출 문장이 그러하다.

26) 강상호(1989)에서는 입말체 즉 구어의 가장 뚜렷한 특성은 구조적 간결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구어가 간결한 구조를 요구하는 것은 언어적 환경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몸짓, 표정, 손짓과 같은 보조적 수단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야기 참가자들의 공통적인 경험과 약속, 앞서 진행된 이야기 등의 보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과 관련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간결성은 음성, 형태, 어휘, 문장 구조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강상호(1989:11-12)) 따라서 발화의 경제성은 결국 구어의 구조적 간결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며, 구어에서 이러한 현상이 생산적임을 예측할 수 있다.

27) 성광수 외(2005)에서 이야기하는 재구조화란 주어의 경우에는 주술관계를 지닌 하나의 문장이 서술절과 같은 구조 역할의 변화로 인해 또 다른 주어를 갖게 되는 구성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 (11) ㄱ. 근데 공부가 화공이 워낙 어려워.
- ㄴ. 야 잘 했는데 우리가 위치가 안 좋았어.
- ㄷ. 내 동생 막내가 조그마한데 애가 손에 막 손이 껌테기가 막 벗겨져.
- ㄹ. 시험 끝나고 머리 깎으러 갔는데 거울 보니까 내가 눈이 시퍼래.

위의 예는 주격 중출 현상인데, 많은 한국어 화자들이 어색한 문장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는 자연스러운 한국어 발화에서 주격 중출의 출현 여부에 관심을 가졌다.²⁸⁾ 실제 자유 발화에서 주격 중출은 기존 연구에서 언급된 유형이 거의 다 출현하였으며, 오히려 예상보다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⁹⁾ 이는 음성적 정보가 추가될 수 있는 구어적 환경에서 이들 문장이 자연스럽게 통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주격 주출문은 음성적 표지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어에서 나타나는 주격 중출 문장의 특성을 살펴보면 주격조사가 반복적으로 실현될 때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ㄱ)은 ‘공부 → 화공’으로 (11ㄴ)은 ‘우리 → 위치’로 (11ㄷ)에서는 ‘애 → 손 → 껌테기’로, (11ㄹ)에서는 ‘나 → 눈’으로 정보가 구체화되고 있다. 구어적 환경에서 ‘의미상 보완성’이라는 담화 전략은 이처럼 통사 구조를 변화시키는 동인이 된다.

- (12) 담화 층위, 통사 층위의 상호 적용 규칙(1)
- ㄱ. 동인 : 담화 층위 <의미상 보완성>
- ㄴ. 변화 : 통사 층위 <주격 중출>³⁰⁾

28) 본고에서 제시하는 주격 중출문은 동일한 서술어의 주어로 기능하는 주격조사가 붙은 형태가 둘 이상 나타나는 환경을 모두 지칭한 것이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주격 중출문이라는 용어를 서술절로 분석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쓰기도 하기 때문에, 본고의 용어는 출현 양상 중심의 비교적 넓은 의미임을 밝힌다.

29) 유형선(2003)의 제3유형에 속하는 구문 역시 구어에서 매우 생산적이었다. 따라서 이 유형 역시 여기에서 다루어야겠으나 ‘물이 얼음이 된다’의 유형은 ‘물’과 ‘얼음’이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미적으로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 둘의 관계가 서술어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함께 다루지 않았다. 이 문제는 차후에 다시 다룰 과제로 남기로 한다.

30) 이러한 주격 중출이 통사 층위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밝히기 위해서

위의 변화는 통사 층위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규칙으로 볼 수 있다.³¹⁾ 이러한 통사 층위의 변화는 복합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 (13) 진짜 예술이야 얼굴이 - 피부가 -까!

위의 예문은 (12)의 규칙을 적용 받는 동시에 ‘얼굴이 - 피부가’라는 것이 도치된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철우(1998), 정희원(2001) 등에서는 한국어에서 초점 표현이 운율적 돌들림이나 어순의 재배치 등에 표현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기존의 초점 연구는 결국 담화 상황에서 발화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요소를 지적한 것으로, 이를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위의 예문에서 어순 도치는 담화 층위에서 특정한 요소를 강조하기 위한 담화 전략이 동인이 되어 통사적인 구조가 변경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14) 담화 층위, 통사 층위의 상호 적용 규칙(2)
- ㄱ. 동인 : 담화 층위 <강조>
- ㄴ. 변화 : 통사 층위 <어순 변화 : 주어의 후치>

담화 층위에서 강조를 위한 통사적 변화의 또 다른 패턴은 동일한 요소가 반복되는 것이다.

- (15) ㄱ. 많진 않은데 돈 쓸 일이 없대 돈 쓸 일이
- ㄴ. 개가 주인공이야 개가?

(15ㄱ)에서는 ‘없다’의 주어가 반복되어 실현되고 있는데, 반복이 일어나는

는 논의가 좀 더 구체화되어야 한다. 통사 층위의 주격 중출 논의를 위하여 임흥빈(2007)에서는 한국어에 나타나는 주격 중출 현상에 대해 용어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론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주격 중출에 나타나는 제1성분이 잉여 성분임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현상을 ‘이/가’ 주체로 볼 수 있다고 하고 있다.

31) 이와 유사한 현상이 목적격 중출에서도 나타난다. ‘경찰이 범인을 손을 잡았다.’라는 문장에서 ‘범인의 손’이라는 소유의 개념으로 파악하게 되면, ‘범인’과 ‘손’은 정보가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고, 결국 목적격 중출 현상 역시 통사 층위와 담화 층위의 상호 적용 규칙으로 설명가능하다.

단위가 문법적으로 주어이며, (15ㄴ)에서 역시 주어인 ‘개개’가 반복되고 있다. 위의 예문에서 이들이 문법적으로 동일한 문장성분 즉 주어의 단위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담화 층위의 요구가 통사 층위와 상호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15)의 예문은 주어가 들이긴 하지만, 기존의 주격 중출로 다루어 오던 예문은 아니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데, 이는 담화 전략에 따른 통사적 실현 양상이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주어로 실현된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주어를 동일한 형태로 반복하고 있다. 강조를 위한 반복은 매우 생산적인 전략 중의 하나이고, 담화 전략이 동인이 되어 통사 구조가 변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16) 담화 층위, 통사 층위의 상호 적용 규칙(3)

ㄱ. 동인 : 담화 층위 <강조>

ㄴ. 변화 : 통사 층위 <강조 요소 복사 + 후치>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담화 층위의 요구에 따라 통사적 단위들이 기능 변화를 일으키는 예이다.

(17) [야 둘이 싸움 붙이니까 막 엄청 많이 나오잖아 얘기가 막 얘기가 이십년 전 얘기가]1 [막 캐내고 그러잖아 지금-]2

위의 예문은 하나의 발화 단위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를 종결어미를 기준으로 문장을 나누어 보았다. 발화자가 음성적으로 이들을 하나의 발화로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내용 역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형태 통사적으로 종결어미가 문장을 나누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새로운 절을 이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 역시 하나의 의미 단위를 하나의 발화로 생성하기 위한 담화 전략이 통사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통사 층위와 담화 층위의 상호 규칙으로 이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8) 통사 층위와 담화 층위의 상호 적용 규칙(4)

ㄱ. 동인 : 담화 층위 <발화 의미의 완결>

ㄴ. 변화 : 통사 층위 <통사 단위의 속성 전이 : 종결어미의 연결어미화>

이렇게 확장된 발화 단위는 위에서 제시한 통사 층위와 담화 층위의 상호 적용 규칙 (1) (2) (3)을 적용받게 된다. 즉, 주어 성분이 강조를 위해 어순이 도치되고, 다시 반복이 일어나고, ‘얘기’에 대해 더 구체적인 정보 ‘이십년 전 얘기가’가 주격 중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위의 예문에서 ‘캐내고 그러잖아’에 대한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위의 발화를 음성적으로 실현해 보면 ‘얘기가’ 앞에 휴지가 있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구어의 다양하고 복잡한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문법 층위 간 상호 적용 규칙을 상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다. 우선 음성적 표지가 특정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를 음운 구조와 통사 층위의 상호 적용 규칙으로 설명하게 되면, 특정한 음성 표지가 통사적 기능을 수행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음성 표지는 객관적으로 수치화하여 그것을 문법 표지라고 규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어떤 표지가 항상 통사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사적 기능을 하는 음성 표지를 상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음성적 특성들이 발화 상황에서 다른 문법적인 특성들과 상호 작용하면서 통사적 기능을 획득하게 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층위 간 상호 적용 규칙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담화 층위와 통사 층위의 상호 적용 규칙은 문법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웠던 여러 가지 현상들을 기존 통사 이론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는다. 다양한 현상들을 문법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통사적 개념이 되기 어려운 초점 등의 구조를 통사부에 상정하지 않아도 주격조사가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설명해 낼 수 있다. 또한 기존 통사론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거나 설명하기 힘든 현상들도 이를 통해 설명해 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된다. 인간은 다양한 목적을 갖고 대화에 참여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따라서 담화 전략에 따라 다양한 표현들을 구사할 수 있는데, 구어의 다양한 실현형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담화 층위와 문법 층위의 상호 적용 규칙을 상정하는 것은

인간의 대화 속성을 생각해 볼 때 타당한 설명이 될 수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가장 구어성의 두드러지는 성인 자유 발화 자료를 토대로 한국어 구어에 나타나는 주격조사 ‘이/가’의 실현 양상을 분석해 보고, 이를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법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구어의 복잡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설명해 내기 위하여 문법의 각 층위 즉 음운구조, 통사구조, 담화구조 사이에 상호 적용 규칙이 있음을 상정하였다. 이때 문법의 각 층위가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의 관계는 평행적이며 이들을 연결하는 상호 적용 규칙에 의해 구어에 대한 설명력을 높였다.

이러한 모형을 토대로 주격조사 ‘이/가’는 형태 통사적으로 주격 표지 기능을 수행하는 성분이라는 설명을 유지하면서 구어의 다양한 양상을 설명할 수 있었다. 기존의 관점에서 비문이라고 다루어졌거나 어색한 문장으로 다루어서 설명하지 않았던 예문들을 설명할 수 있고, 주격 증출 현상에 대해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또한 기존 문법에서 설명하기 힘들었던 도치 반복 등이 일어나는 현상 등에 대해서도 설명력을 갖출 수 있다.

본고는 구어를 설명하기 위하여 구어가 갖는 여러 가지 특성을 문법 모형에 반영하여 앞으로의 구어 연구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주격조사 ‘이/가’에 한하여 논의를 한정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법 모형을 다 제시했다고 볼 수 없다. 이는 다른 문법적인 현상들을 토대로 연구가 쌓여야 하고, 이들 연구를 토대로 문법 모형이나 구어의 설명 방법 등이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참고문헌

- 강상호(1998). 「조선 입말체 연구」. 평양:사회과학출판사.
- 고현숙(1998). “한국어의 주제와 주어.” 담화와 인지. 제5권 1호. pp.1-15.
- 김태경·김정선·최용석(2005). “구어 주석 코퍼스 구축을 위한 발화 단위 연구.” 「한국언어문화」 제28집. 한국언어문화학회.
- 김진호(2000). 「국어 특수조사의 통사·의미 연구」. 도서출판 역락.
- 김영희(1978). “겹주어론.” 한글, 162. pp.39-75.
- 김홍규·강범모(1997). 「한국어 형태소 및 어휘 사용 빈도의 분석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목정수(2005). “국어 이중주어 구문의 새로운 해석.” 언어학, 제41호. 한국언어학회. pp.75-99.
- 박석준·남갑임·서상규(2003). “대학생 구어 텍스트에서의 조사, 어미의 분포와 사용 양상에 대한 연구.” 「텍스트언어학」 15. 텍스트언어학회.
- 박철우(1998). “한국어 정보구조에서의 화제와 초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성광수 외(2005). 「한국어 표현 문법」. 한국문화사.
- 성기철(2006). “주격조사 ‘-가’의 의미.” 「선청어문」 제22집. pp. 277~302.
- 성재철·송윤경(1997). “주어자리조사의 운율패턴에 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말소리, 33-34호. pp.23~42.
- 신지영(2001). “음성 언어 정보 처리의 방법과 실제.” 「민족문화 연구」 35. pp.111-129.
- 신창순(1975). “국어의 ‘주어 문제’ 연구.” 「문법연구」 2.
- 유형선(2003). “한국어 주어 연구사.” 「인문과학논총」 제12집. pp.5-20.
- 유혜원(2002). “국어의 격 교체 구문의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기동(1981). “말과 의식.” 「말」 제6집. pp. 29~50. 연세대학교.
- 이필영(2004). “주제어와 주어.” 「형태론」 6권1호. pp. 126-139.
- 이희자(2002). “의사소통의 최소 단위서의 발화문과 문장.” 텍스트언어학, 13.
- 이흥식(2000). 「국어 문장의 주성분 연구」. 월인.
- 임흥빈(1972). “국어의 주제화 연구.” 「국어연구」 28. 서울대학교 대학원.
- 임흥빈(2007). 한국어의 주제와 통사 분석. :주제 개념의 새로운 전개.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전영옥(2003). “한국어 억양 단위 연구.” 「담화와 인지」. 10-1. pp.241-265.
- 정희원(2001). “한국어 대조화제와 화제, 초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호철(1999). “조사의 의미론적 연구.” 국어의 격과 조사. pp. 319~359. 월인.
- 한정환(2002). “‘가’, ‘를’의 연결이론.” 「어학연구」 38-3. pp.827~850.
- Halliday(2004).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Third edition*. Hodder Arnold.
- Jackendoff(2002). *Foundations of Language*. 김종복 외(2005) 역. “레이 제렌도프의 언어의 본질.” 도서출판 박이정.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1동 126번지 단국대학교 인문관 317호
우편번호 : 448-547
전화번호: 031-8005-3518
전자우편: yhw72@chol.com

원고 접수일: 2008년 10월 26일
원고 수정일: 2009년 3월 8일
게재 확정일: 2009년 4월 20일